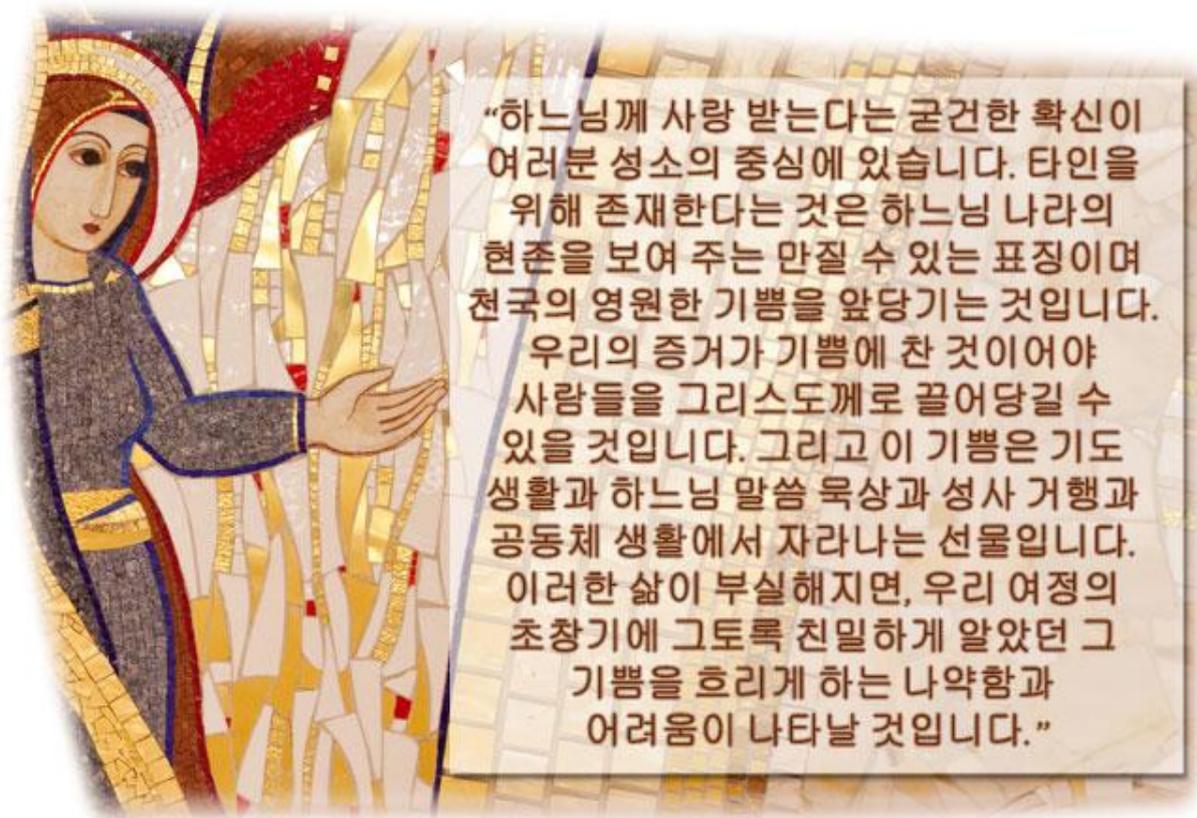


2014 년 10 월 7 일 경축인사

사랑하는 수녀님들께,

우리의 창립 76 주년을 맞아, 제 7 차 중간총회의 폐막과 성바오로 수도회의 총장인 실비오 사씨 신부님이 돌아가신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에 전 바오로 가족 수도회의 여정을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제가 체사리나 수녀님과 함께 9 월 26 일부터 방문중인 한국에서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자매들과 함께, 지난 8 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 방문 중 한국 수도 공동체에 선포하신 권고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사랑 받는다는 굳건한 확신이 여러분 성소의 중심에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 주는 만질 수 있는 표징이며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기쁨에 찬 것이어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기도 생활과 하느님 말씀 묵상과 성사 거행과 공동체 생활에서 자라나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삶이 부실해지면, 우리 여정의 초창기에 그토록 친밀하게 알았던 그 기쁨을 흐리게 하는 나약함과 어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축성봉헌 생활의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우리의 축제를 일치 안에 거행합시다.

마음 안에,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의향들을 우리의 선한목자이신, 주 예수께 가져갑니다. 애정을 담아서,

마르타 피노텔리 수녀
총장

2014 년 10 월 7 일, 서울에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에